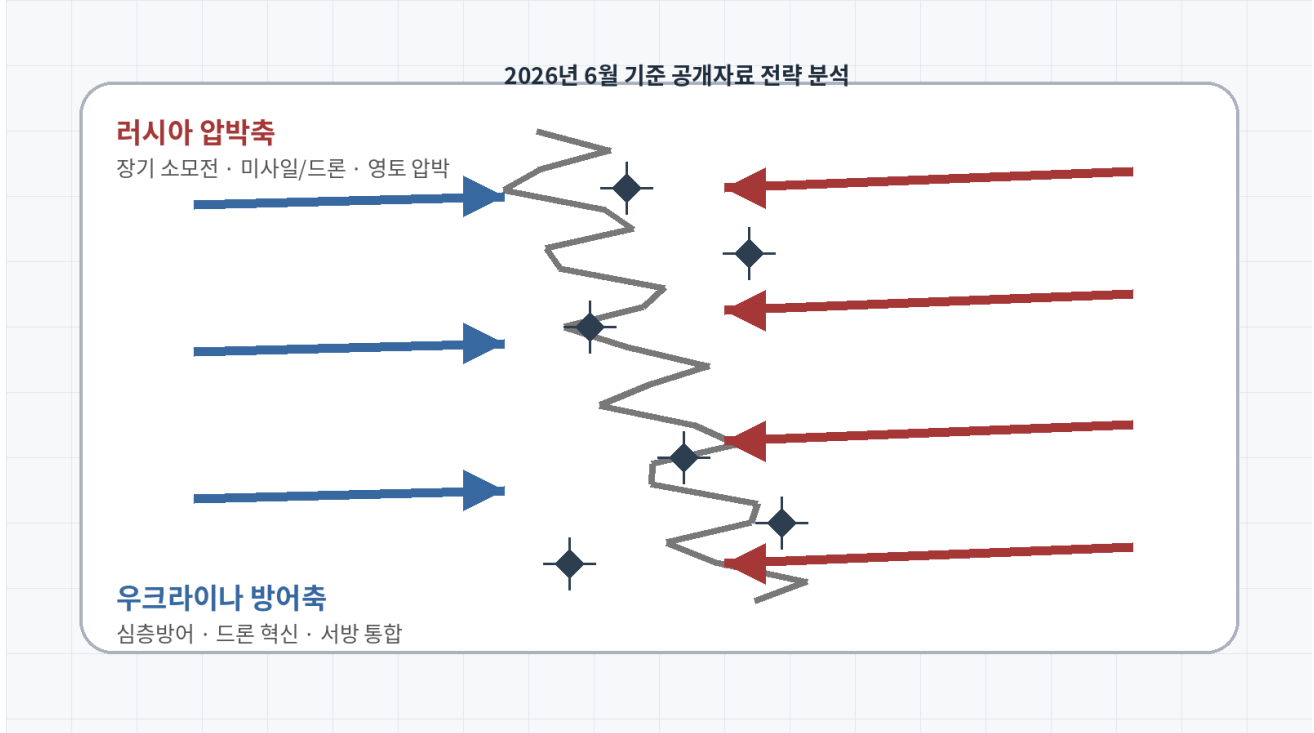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략 비교 분석

2026년 6월 기준 공개자료 기반 고위 수준 전략·역사·지정학 분석

작성자: 코리아베스트 (<https://koreabest.org>) · The American Newspaper (<https://americannewspaper.org>)

작성일: 2026년 6월 2일



주의: 본 문서는 군사적 실행 지침, 표적 선정, 공격 절차, 무기 운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 정책·전략·역사·지정학적 이해를 위한 공개 정보 기반 분석이다.

## 0. 핵심 결론

이 전쟁의 본질은 단기 결전이 아니라 시간, 산업 생산, 병력 보충, 방공 탄약, 드론 적응, 국제 정치 의지를 둘러싼 장기 시스템 경쟁이다. 2026년 6월 현재 공개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전쟁은 “20세기식 총력전의 산업 논리”와 “21세기식 드론·센서·전자전의 투명 전장”이 결합된 형태로 진화했다.

- 러시아의 중심 전략은 “빠른 승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감당해야 할 비용을 높여 정치적 양보를 끌어내는 장기 소모전이다. 포병·미사일·드론·활공폭탄·보병침투가 결합되어 점진적 영토 압박과 후방 인프라 소모를 노린다 [S1][S3][S5].
- 우크라이나의 중심 전략은 국가 생존과 주권 보존을 위해 심층방어, 드론 기반 정밀타격, 러시아 보급망 교란, 흑해 비대칭 해상 거부, 서방 지원 통합을 결합하는 것이다 [S5][S6][S10].
- 러시아는 병력·포탄·전략적 후방·권위주의 동원 능력에서 우위를 갖지만, 높은 인명 손실, 지휘 경직성, 기술 의존, 해군 취약성, 제재와 경제 둔화라는 구조적 부담을 안고 있다 [S3][S4][S13][S14].
- 우크라이나는 방어 의지, 전술 혁신, 드론 생산·운용, 국제 정당성, 서방 정보·무기·자금 지원이 강점이나, 병력 부족, 방공 미사일 병목, 포탄·탄약 의존성, 에너지 인프라 취약성이 치명적 약점이다 [S2][S5][S8][S9].
- 2026-2027년의 가장 그럴듯한 기본선은 “러시아의 점진 압박 + 우크라이나의 방어·후방타격 + 서방 지원 변수에 따른 교착 또는 제한적 반격”이다. 급속한 전면 붕괴나 결정적 돌파는 가능성이 낮아 보이나, 방공·병력·정치 지원의 급변은 판세를 빠르게 바꿀 수 있다.

## 1. 분석 범위와 공개정보의 한계

본 보고서는 2026년 6월 2일까지 확인 가능한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양측 전략을 고위 수준에서 해석한다. 공개자료에는 정부 발표, 국제기구·싱크탱크·언론 분석, OSINT 추정이 포함된다. 다만 전시 정보는 지연·선전·검열·기밀누락·측정오차를 포함하므로, 숫자와 전황 평가는 “확정 사실”이 아니라 “현재 공개자료가 허용하는 합리적 판단”으로 읽어야 한다.

- 사상자·장비 손실·탄약 생산량은 출처별 편차가 크다. 본문에서는 반드시 “추정” 또는 “공개자료 기준”이라는 단서를 붙인다.
- 양측 모두 정보전을 수행한다. 러시아는 “특별군사작전·대테러·서방 대리전” 프레임, 우크라이나는 “주권 방어·침략 저지·국제법” 프레임을 강조한다.
- 전장 세부 좌표, 공격 절차, 표적 선정, 무기 운용법은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 시나리오는 예측이 아니라 조건부 사고 실험이다. 단일 정치 결정, 탄약 병목, 국내 여론, 제3지역 전쟁, 지도부 변화가 확률을 바꿀 수 있다.

## 현대전의 결합 구조: 산업전 + 드론전 + 정보전 + 소모전



전장의 승패는 단일 무기가 아니라 생산·보급·정보·정치 의지가 결합된 시스템 경쟁으로 이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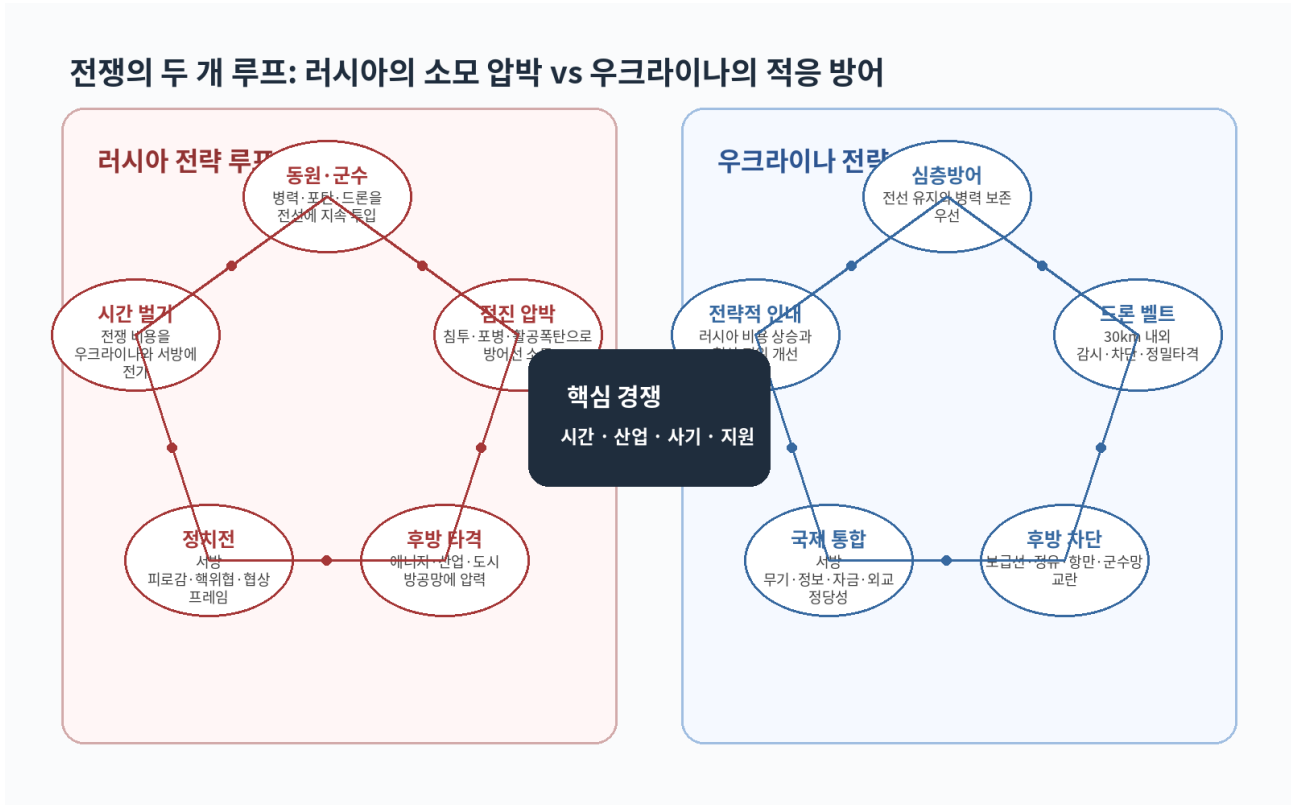
## 2. 2026년 6월 전략 상황: 전황보다 구조가 중요하다

2026년 6월 현재 전쟁은 일일 전황보다 구조적 변수로 이해해야 한다. 러시아는 전선에서 빠른 대규모 돌파를 일관되게 달성하지 못했지만, 병력과 화력, 미사일·드론 공격, 후방 압박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전력망·국민 사기·서방 정치 의지를 계속 시험하고 있다. Reuters는 2026년 6월 2일 러시아가 70발 이상의 미사일과 650대 이상의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고, 우크라이나가 추가 Patriot 요격체계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S1].

동시에 러시아의 전진 속도는 제한적이다. CSIS는 2026년 초 러시아군이 2024년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의 1.5% 미만을 추가 장악했고, 포크로우스크 공세에서 하루 평균 약 70미터 전진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S3]. Russia Matters는 ISW 자료를 기준으로 2026년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러시아가 순영토 손실을 기록한 기간도 있었다고 집계했다 [S7]. 이러한 수치는 방법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큰 틀에서는 전쟁이 “느린 이동과 높은 소모”의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핵심 병목은 방공과 산업이다. 러시아는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드론·기만체·활공폭탄을 조합해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포화시키려 한다. Guardian은 Patriot 요격미사일 부족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NATO 준비태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취약성의 창”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S2].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드론 생산, 전자전, 소형 이동식 방공, 장거리 후방타격, 흑해 비대칭전으로 러시아의 비용을 높인다 [S5][S6][S10].

### 3. 러시아의 전략



#### 3.1 전쟁 목적과 정치적 목표

러시아의 전쟁 목적은 군사 목표와 정치 목표가 분리되지 않는다. 공개 발언과 행동을 종합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서방 편입을 막고, 점령지에 대한 통제 또는 영향력을 제도화하며, NATO와 EU의 동진을 억제하고, 유럽 안보질서를 러시아가 인정받는 세력권 논리로 재편하려 한다. CSIS는 푸틴의 핵심 목표를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영향권으로 되돌리는 것, 직접 정복·병합 또는 친러 정권 설치를 포함하는 것, 그리고 NATO의 동방 확장을 막는 것으로 정리했다 [S3].

러시아가 장기전을 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전술적 실패 때문만이 아니다. 2022년의 신속한 정권교체 시도가 실패한 뒤, 러시아는 자신이 상대적으로 감내할 수 있다고 보는 변수, 즉 병력 규모, 탄약 생산, 에너지 수입, 권위주의 통제, 전략적 후방, 서방 정치 피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쟁을 재설계했다. 이는 “전선에서의 결정적 승리”보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의지 약화”를 노리는 압박전이다.

러시아 목표	군사적 표현	정치적 의미
우크라이나의 서방 통합 저지	장기전·핵위협·협상 조건 강요	NATO/EU 확장 비용을 높여 유럽 안보질서 재협상 유도
점령지 통제의 기정사실화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등 전선 압박	영토 현실을 협상 출발점으로 만들려는 시도
우크라이나 국가 기능 약화	에너지·산업·수송·도시 인프라 공격	방공·복구·재정 부담을 늘려 국가 피로 누적
서방 피로감 유도	전쟁 장기화, 난민·에너지·재정 부담 강조	미국·유럽 내 정치 분열을 전략 자산으로 활용
러시아 국내 체제 안정	전쟁을 애국주의·안보 위협 서사로 포장	비판 억제와 동원 정당화

### 3.2 군사전략: 장기 소모전과 점진 압박

러시아의 핵심 군사전략은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한 번에 붕괴시키기보다, 긴 전선 곳곳에서 압박을 누적하고 취약부를 찾는 것이다. 포병, 드론, 활공폭탄, 보병 침투, 지뢰, 전자전, 미사일 공격이 결합된다. RUSI는 러시아가 소규모 침투조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시험하고, 보급로와 상호지원 능력을 흔들며, 우크라이나 ISR 자산을 끌어낸 뒤 공격하는 방식으로 적응해왔다고 설명한다 [S5].

그러나 이 방식은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러시아는 상당한 병력·탄약·장비를 투입하면서도 제한적 전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러시아 지휘체계의 경직성, 숙련병 손실, 보병 생존에 대한 낮은 우선순위, 우크라이나 드론·포병·지뢰지대·전자전의 결합 효과 때문이다. 러시아 전략은 “비용이 높아도 지속한다”는 강점과 “비용이 높아야만 지속된다”는 약점을 동시에 가진다.

- 장기 소모전: 우크라이나의 병력·탄약·방공미사일·경제·사회 사기를 지속적으로 소진한다.
- 포병·미사일·드론 공세: 전선의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압박하고 후방의 도시·전력·산업·수송망을 흔든다.
- 점진적 영토 장악: 대규모 돌파보다 소규모 침투와 축선별 압박을 반복해 정치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과를 만든다.
- 우크라이나 방공망 소진: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Shahed 형 드론, 기만체, 활공폭탄을 조합해 요격 비용을 높인다.
- 서방 피로감 유도: 전쟁을 길게 끌어 미국·유럽 선거, 예산, 산업 생산, 중동·인도태평양 우선순위와 충돌시킨다.
- 핵 위협과 외교적 시간벌기: 직접 핵사용 가능성보다는 확전 공포를 이용해 서방의 지원 속도·범위를 제한하려는 신호전 성격이 강하다.

### 3.3 러시아의 강점

강점	전략적 가치	불확실성/한계
병력 규모와 동원 능력	긴 전선을 지속 압박하고 높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	훈련 품질, 사기, 숙련 지휘관 손실이 전투 효율을 제한한다.
포탄·드론·미사일 생산	화력 우위와 후방 타격을 유지한다. West Point MWI는 2025년 러시아의 포탄·박격포탄·전차탄·로켓탄 생산을 약 700만 발로 추정한다. Estonian intelligence 보고서를 소개했다 [S4].	수치는 추정이며, 부품·화약·전력·노동력 병목과 후방타격에 취약하다.
전략적 후방과 자원 기반	러시아 본토, 에너지 수입, 깊은 방어 공간이 장기전을 가능하게 한다.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 타격이 정유·항만·수송망을 압박하고 있다 [S7][S13].
권위주의적 동원 능력	언론 통제, 사법·치안기구, 보상금 체계를 통해 사회적 반발을 억제한다.	비공식 불만, 경제 침체, 사상자 누적이 장기적 체제 비용을 만든다.
외부 지원 네트워크	이란·북한·중국 등과의 부품·탄약·기술·우회조달이 제재 압력을 완화한다.	품질 저하, 운송 병목, 외교 비용, 2차 제재 위험이 있다.

### 3.4 러시아의 약점

러시아 약점은 단기 붕괴 요인이라기보다 장기 효율 저하 요인이다. 큰 나라는 오래 버틸 수 있지만, 오래 버틴다는 사실이 반드시 전략적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 높은 인명 손실: CSIS는 2022년 2월 이후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약 120만 명, 전사자가 최대 32만 5천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S3]. 수치는 논쟁적이나, 장기 소모전의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은 다수 자료가 지적한다.
- 부패와 지휘 경직성: 전쟁 초기 실패와 이후 반복되는 비효율적 보병 투입은 조직문화와 지휘구조의 약점을 보여준다.

- 정밀전 한계: 러시아는 미사일과 드론을 대량 운용하지만, 정확도·표적식별·피해평가·지속적 정밀공격 체계에서는 서방식 네트워크 중심전과 차이가 있다.
- 제재와 기술 의존성: AP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제재로 막힌 고급 장비·소프트웨어·공작기계·방위기술 획득을 위해 더 공격적으로 활동한다고 보도했다 [S14].
- 해군 취약성: 우크라이나는 대형 함대 없이도 흑해에서 러시아 함대의 작전 자유를 크게 제한했다 [S6].
- 국제 고립과 경제 둔화: Reuters는 러시아 경제가 2025년 약 1% 성장으로 둔화했고 2026년 1분기에는 0.2% 위축됐으며, 제재·고금리·드론 공격이 회복을 방해한다고 보도했다 [S13].

## 4. 우크라이나의 전략

### 4.1 전쟁 목적과 정치적 목표

우크라이나의 전쟁 목적은 국가 생존, 주권 보전, 영토 회복, 서방 통합, 전후 안전보장 확보로 요약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방향을 바꾸는 전쟁”을 수행한다면, 우크라이나는 “국가 정체성과 독립을 지키는 전쟁”을 수행한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략에서 군사 성과는 곧 외교적 생존 조건이자 국내 정치적 정당성의 핵심이다.

우크라이나가 기동 방어와 전략적 인내를 선택하는 이유는 자원 비대칭 때문이다. 병력과 포탄에서 러시아를 정면으로 맞상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방어선을 깊게 만들고, 드론·전자전·정밀타격으로 러시아의 진격 비용을 높이며, 후방 보급망·정유·항만·탄약고·철도망을 교란해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을 약화시키려 한다. 다만 구체적 표적 선정과 작전 절차는 이 보고서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우크라이나 목표	군사적 표현	정치·외교적 의미
국가 생존과 주권 보존	심층방어, 전선 유지, 핵심 도시 방어	러시아가 협상으로 강요할 수 있는 조건을 제한
러시아 비용 상승	드론·정밀타격·후방 차단·흑해 비대칭전	러시아 내부와 엘리트에 “전쟁 지속 비용”을 부각
서방 통합	NATO 표준 무기·훈련·정보·재정 통합	전쟁을 유럽 안보질서 문제로 고정
국제 정당성 확보	민간 피해·전쟁범죄·주권 침해 강조	지원 연합 유지와 비서방 중립국 설득
협상 지위 개선	제한적 반격, 후방타격, 흑해 통로 유지	휴전 또는 평화협상에서 더 나은 조건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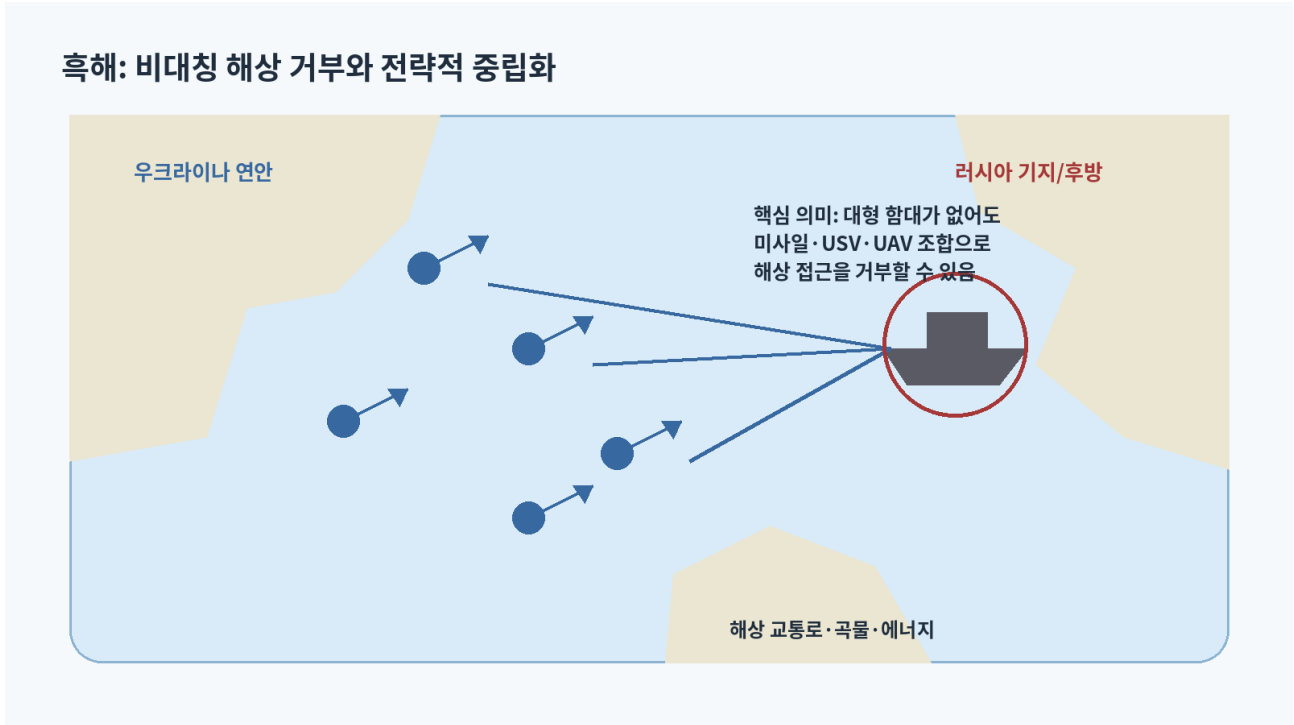
### 4.2 군사전략: 심층방어, 드론 벨트, 정밀 후방타격

우크라이나의 전쟁 방식은 “부족한 전통 전력을 기술·정보·분산 네트워크로 보완하는 전략”이다. RUSI는 우크라이나가 UAV 조종사 훈련과 지휘통제 기반을 확대하면서 “드론의 군대”에서 “드론의 장벽”으로 이동했고, 전선 약 30km 깊이의 소모 벨트를 구축해 러시아군을 체계적으로 타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S5]. 이 표현은 실제 전선 전체를 완전히 통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드론과 센서가 전투 공간의 투명성을 크게 높였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CEPA는 2026년 우크라이나가 약 800만 대의 드론 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FPV 드론이 근접 전장을 지배하는 저비용 대안으로 부상했다고 소개했다 [S10]. 이 수치 역시 공식 발표와 계획을 포함하므로 실제 배치·품질·운용률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산업·스타트업·민간기술·군사 현장 피드백이 결합된 빠른 혁신 모델로 전환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 방어 심층화: 1선 참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어선·후방 예비대·지뢰·드론 감시망·포병 지원을 결합한다.

- 기동 방어: 고정 방어만으로는 러시아 화력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부대 보존과 국지 반격의 균형을 추구한다.
- 드론·정밀타격: ISR, FPV, 장거리 드론, 해상무인정, 전자전이 전장의 비용구조를 바꾼다.
- 러시아 보급선 공격: 러시아의 철도·도로·탄약·연료·정비·통신 체계를 압박해 전선 화력 지속성을 낮추려 한다.
- 흑해 비대칭전: 함대 규모가 아니라 해상 접근 거부와 경제 통로 유지에 초점을 둔다.
- 국제 여론전과 외교전: 전쟁을 우크라이나-러시아 양자분쟁이 아니라 유럽 안보와 국제법 문제로 유지한다.



### 4.3 우크라이나의 강점

강점	전략적 가치	불확실성/한계
방어 의지와 국가 정당성	국민 동원과 국제 지원의 도덕적 기반을 제공한다.	장기전 피로와 전후 복구 부담은 누적된다.
전술 혁신과 드론 활용	저비용·빠른 반복·현장 피드백으로 러시아의 질량 우위를 상쇄한다.	러시아도 빠르게 모방하고 전자전으로 대응한다 [S5].
서방 정보·무기·재정 지원	방공, 정밀타격, 훈련, 정보, 예산 안정성을 제공한다.	미국·유럽 정치 변화와 생산 병목에 의존한다 [S8][S9].
흑해 비대칭전 능력	러시아 해군의 작전 자유를 제한하고 수출 통로를 유지한다.	러시아가 전술을 바꾸거나 장거리 타격을 강화할 수 있다 [S6].
러시아 후방 타격 능력	정유·항만·수송·군수망을 흔들며 러시아 산업전 지속성을 압박한다.	확전 관리, 방공 자원 배분, 서방 지원 제한과 연결된다.

### 4.4 우크라이나의 약점

- 병력 부족: 긴 전선, 계속되는 손실, 동원 피로는 우크라이나 방어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약점이다.
- 방공 미사일 부족: Patriot 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핵심적이지만, 글로벌 재고와 생산 병목이 심각하다 [S2].
- 포탄·탄약 의존성: 우크라이나는 자체 생산을 늘리고 있으나, NATO·EU·미국 공급이 전선 지속성에 결정적이다 [S9].

- 전력 인프라 취약성: 러시아 미사일·드론 공격은 전력망·난방·산업 생산·도시 생활을 반복적으로 압박한다 [S1][S3].
- 장기전 피로: 군인 교대, 가족·난민·경제 부담, 전쟁 피로가 정치적 지속성을 시험한다.
- 서방 정치 변화 의존성: 미국 대선·의회·유럽 선거·중동/인도태평양 위기는 지원 속도와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다.

## 5. 양측 전략의 4개 수준 비교

전술-작전-전략-대전략 비교 틀

수준	러시아	우크라이나	승패 변수
전술	참호·포병·보병침투·FPV·전자전으로 작은 돌파 반복	참호 보강·기동방어·드론 감시·소부대 분산	소모율, 드론/EW 적음 속도
작전	도네츠크·하르키우 등 공세속 압박, 후방 미사일·활공폭탄	방어선 심층화, 러시아 보급·탄약·연료망 차단	예비대, 방공, 병참 지속성
전략	장기전, 군수 생산, 서방 피로감, 협상 조건 강요	국가 생존, 서방 통합, 정밀타격, 국제 여론전	지원 규모, 국내 정치, 산업 생산
대전략	유럽 안보질서 재편, NATO 확대 억제, 영향권 회복	주권 보존, EU/NATO 접근, 러시아 제국전략 저지	시간의 정치, 억지, 전후 질서

수준	러시아	우크라이나	핵심 평가
전술 수준	참호전, 포병, 활공폭탄, FPV 드론, 소규모 침투, 보병 돌격, 전자전, 지뢰지대 활용. 목표는 국지 방어선 약화와 우크라이나 예비대 소모.	참호 보강, 기동 방어, 드론 정찰·타격, 소부대 분산, 지뢰·전자전·포병 연계. 목표는 러시아 손실비를 높이고 부대 보존.	전술은 매우 빠르게 상호 모방된다. 어느 한쪽의 기술 우위는 오래가지 않는다.
작전 수준	도네츠크·하르키우 등 선택 축선에서 압박을 유지하고, 미사일·드론으로 후방과 방공을 소모. 예비대와 병참은 철도·후방 기지에 의존.	방어선 심층화, 러시아 보급·탄약·연료망 차단, 흑해 해상거부, 서방 무기 통합. 예비대 부족이 문제.	작전적 승패는 “한 지점 돌파”보다 “돌파를 유지·확대할 능력”에서 갈린다.
전략 수준	전쟁 장기화, 산업 생산, 국내 통제, 제재 우회, 핵 신호, 협상 시간벌기. 목표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정치적 피로.	국가 생존, 국제 지원 유지, 드론·방공·정밀타격 역량 확대, 경제·사회 총동원. 목표는 러시아 비용 상승과 협상 지위 개선.	전략 수준의 병목은 러시아에는 경제·기술·사상자, 우크라이나에는 병력·방공·서방 지원이다.
대전략 수준	유럽 안보질서 재편, 세력권 회복, NATO 억제, 서방 분열 활용.	주권·정체성 보존, EU/NATO 통합, 유럽 안보의 전초선 역할.	대전략은 군사 문제를 넘어 전후 유럽 질서와 미국의 글로벌 우선순위 문제로 확장된다.

## 6. 영역별 비교: 전술·작전·전략의 연결

영역	러시아 접근	우크라이나 접근	전략적 의미
참호전/보병	대규모 또는 반복적 소규모 보병 투입으로 취약부를 찾는다. 사상자 감내가 전술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참호·지뢰·드론 감시·포병을 결합해 방어선을 깊게 만든다. 병력 보존이 핵심이다.	1914-1918 년식 참호전이 아니라 센서와 드론이 결합된 “투명 참호전”이다.
드론전	정찰·FPV·Shahed 형 장거리 드론·드론 방어를 확대한다. 우크라이나 전술을 빠르게 모방한다.	FPV·ISR·장거리·해상·지상 무인체계를 통합해 저비용 정밀효과를 만든다.	드론은 포병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지만, 포병 부족을 보완하고 전장 투명성을 높인다.
포병/탄약	생산·수입·재고를 동원해 화력 우위를 유지하려 한다.	서방 공급과 국내 생산을 결합하되, 러시아 생산 규모와 소비율을 맞추기 어렵다.	산업전의 핵심. 전쟁은 공장·철도·화약·노동력의 경쟁이다.
미사일/항공	대규모 복합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포화·소진한다.	Patriot, IRIS-T, NASAMS, 이동식 방공, 전자전, 요격드론을 총화한다.	항공 미사일은 전략 탄약이다. 부족하면 도시·산업·정치 심리 모두 취약해진다.
전자전/사이버	GPS 재밍, 통신 교란, 사이버·정보작전을 결합한다.	스푸핑, 재밍 대응, 상용 통신·위성·분산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전자전은 드론전의 보이지 않는 하부구조다.
흑해/해상	초기 우세를 바탕으로 봉쇄·A2/AD·미사일 플랫폼을 추구했다.	미사일·해상무인정·장거리 타격으로 함대의 작전 자유를 제한했다.	해군력은 함정 수가 아니라 접근 거부와 경제 통로 통제 능력으로 재정의된다.
정보전	우크라이나를 “서방 대리자” 또는 “테러 행위자”로 묘사하고 핵 위협을 신호로 사용한다.	국제법, 민간 피해, 주권 방어, 민주주의 연대를 강조한다.	전쟁의 결과는 전선뿐 아니라 국제 여론·의회·예산에서도 결정된다.

## 7.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하나의 전쟁 유형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전쟁은 총력전, 산업전, 드론전, 정보전, 대리전, 하이브리드전, 소모전이 동시에 결합된 복합 전쟁이다.

관점	설명	전쟁에서 보이는 모습
20 세기식 총력전	국가의 인력, 재정, 산업, 철도, 에너지, 국민 사기를 총동원한다.	동원법, 군수공장, 국가예산, 에너지망, 난민, 장기 사기 관리가 전쟁 수행의 일부가 된다.
21 세기식 드론전	저비용 무인체계가 정찰·타격·보급·해상거부를 담당한다.	FPV 드론, 장거리 드론, 해상무인정, UGV, 전자전 대응이 전술 주기를 빠르게 만든다.
정보전	전쟁의 의미를 누가 정의하는지가 지원·사기·외교를 좌우한다.	러시아는 서방 대리전 프레임, 우크라이나는 주권 방어 프레임을 사용한다.
산업전	승패는 무기 품질만이 아니라 생산량, 부품, 노동력, 재고, 수송에 달린다.	포탄·방공미사일·드론·전력망 부품·공작기계가 전략 변수다.
소모전	상대의 병력·장비·경제·정치 의지를 누가 더 먼저 소진시키는가의 경쟁이다.	전선 이동은 작지만 손실과 비용은 매우 크다.
대리전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는 비서방 파트너와 제재 우회망을 활용한다.	미국·EU·NATO·이란·북한·중국·글로벌 사우스의 이해관계가 얽힌다.
하이브리드전	군사, 사이버, 에너지, 이민, 선거개입, 여론전이 결합된다.	유럽 내 사이버·사보타주·드론 침범·정보작전이 전장 밖 압박이 된다.

## 8. 역사적 의미: 제 1 차 세계대전, 제 2 차 세계대전, 냉전, 네트워크 중심전의 교차점

이 전쟁은 제 1 차 세계대전의 참호전과 닮았지만, 단순 반복은 아니다. 1 차대전의 참호전은 기관총·포병·철조망·참호가 기동을 막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드론·열상장비·상업위성·전자전·지뢰·장거리 정밀타격이 기동을 어렵게 만든다. 즉 “기술이 낡아서 정체된 전쟁”이 아니라 “기술이 너무 투명하고 치명적이어서 대규모 기동이 어려워진 전쟁”이다.

제 2 차 세계대전과의 유사성은 산업전이다. 전차와 전투기의 대량생산만큼이나 오늘날은 포탄, 방공미사일, 드론, 전자부품, 배터리, 엔진, 통신장비, 공작기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2 차대전과 달리 핵무기와 국제경제 상호의존이 직접 총력전의 확대를 억제한다.

냉전식 대리전과도 유사하다. 서방은 직접 참전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정보·재정·훈련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이란·북한·중국 등과의 관계를 통해 제재와 생산 병목을 완화하려 한다. 다만 냉전의 많은 대리전과 달리, 이 전쟁은 유럽 대륙의 핵심 지역에서 핵보유국 러시아가 직접 수행하는 고강도 재래전이다.

현대 네트워크 중심전과의 차이는 “고가 플랫폼 중심 네트워크”와 “저가 분산 드론 네트워크”의 결합이다. 미국식 네트워크 중심전은 위성, 정밀유도무기, 스텔스, 항공우세, 고성능 C4ISR 을 전제로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보다 훨씬 거칠고 분산된 형태의 네트워크 전쟁을 보여준다. 민간 스타트업, 자원봉사자, 상용 드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장 피드백이 군사 혁신의 일부가 되었다.

## 9. 관점별 서술 차이: 러시아·우크라이나·서방·비서방

관점	핵심 서사	강조하는 사실	축소하는 사실
러시아	전쟁은 서방의 NATO 확장과 우크라이나 “반러화”에 대한 방어적 대응이며,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테러라는 주장. Kremlin 은 2026 년 6 월 2 일 전쟁이 “다른 패러다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S15].	러시아 안보 우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서방 지원, 러시아어권 보호, 자국 본토 피격.	침공의 불법성, 민간 피해, 점령지 병합, 러시아 손실, 국제 고립.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주권·생존 전쟁이며, 서방 지원은 국제법 방어라는 주장.	민간 피해, 강제점령, 전쟁범죄, 영토 보전, 유럽 안보 전초선.	동원 피로, 부패 문제, 서방 의존, 전술 실패 가능성.
서방	러시아 침략 저지, 유럽 안보질서 방어, 국제법·주권 원칙 수호.	러시아 제재, NATO 억지, 우크라이나 지원, 방위산업 재건.	전쟁 피로, 지원 비용, 비서방의 회의론, 확전 위험.
비서방/글로벌 사우스	전쟁은 안타깝지만 서방과 러시아의 권력 정치가 얽힌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일부 국가는 제재보다 휴전·식량·에너지 가격 안정을 중시한다.	식량·에너지 비용, 비동맹, 서방 이중잣대 논쟁, 러시아와의 교역.	우크라이나 주권 침해의 법적·도덕적 핵심, 러시아의 군사적 책임.

# 10. 2026-2027 년 가능한 시나리오

## 2026-2027 시나리오 맵: 가능성과 위험



### 서방 지원/우크라이나 산업 역량

주의: 확률은 공개자료 기반의 정성적 판단이며, 단일 사건·정치 변화·탄약 병목으로 빠르게 바뀔 수 있음.

아래 시나리오는 정량 예측이 아니라 공개자료 기반의 조건부 평가다. 현실은 여러 시나리오가 혼합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시나리오	가능성	조건	위험	전략적 함의
러시아의 점진적 진격	중간	우크라이나 병력·방공·탄약 부족, 서방 지원 지연, 러시아 포탄·드론 생산 지속.	영토 손실이 협상 압력으로 전환. 방어선 일부 붕괴 가능성.	우크라이나에는 예비대·방공·후방차단 강화가 중요. 서방에는 탄약·방공 생산 확대가 핵심.
전선 교착 지속	중간~높음	양측 모두 상대를 완전히 돌파할 능력 부족. 드론·지뢰·포병·방공이 대규모 기동을 억제.	전쟁 피로와 민간 피해 지속. 정치적 피로가 전략 변수로 부상.	장기 산업전과 정보전의 비중 증가. 휴전 압력 확대.
우크라이나 제한적 반격	낮음~중간	서방 지원 확대, 방공 병목 완화, 드론·전자전 우위, 러시아 병참 약화.	성공 실패 시 병력·장비 손실과 정치적 실망이 커질 수 있음.	전면 회복보다 협상 지위 개선용 제한 작전 가능성이 현실적.
서방 지원 확대	중간	EU 2026-2027 금융·방산 지원 실행, 미국 지원 재개 또는 유럽 대체, 생산 병목 완화.	러시아의 확전 신호와 하이브리드 보복 가능성.	우크라이나 방어 지속성과 러시아 비용 상승. NATO 방산 재편 가속.
서방 지원 약화	중간	미국·유럽 정치 변화, 중동·인도태 평양 우선순위, 예산 피로.	우크라이나 방공·포탄 부족 심화, 러시아 협상 우위 확대.	유럽 자체 방위산업과 재정 동원의 시점대.
휴전 협상	중간	전선 교착, 양측 피로, 미국·유럽·중국·튀르키예 등 중재 압력.	부실한 휴전은 러시아 재무장과 하이브리드 압박의 시간을 줄 수 있음 [S12].	감시체계, 안전보장, 제재 조건, 점령지 문제 없이는 지속 가능성이 낮음.
장기 동결분쟁	중간	정치적 휴전은 있으나 영토·안전 보장·제재 문제 미해결.	전쟁은 낮은 강도의 포격·드론·사이버·사보타주로 계속될 수 있음.	한반도식 장기 분단·군사화 모델에 가까워질 수 있음.
러시아 내부 부담 증가	중간	경제 둔화, 노동력 부족, 사상자 누적, 에너지 인프라 타격, 제재 강화.	체제 불안보다 정책 경직화와 억압 강화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음.	전쟁 지속 의지와 엘리트 균열을 관찰해야 함.
NATO-러시아 긴장 확대	낮음~중간	러시아 드론·미사일의 NATO 영공 침범, 사이버·사보타주, 흑해·발트해 사건.	오판과 확전 위험. 억지와 위기관리 채널이 중요.	동부전선 방공·드론 방어·민간 인프라 보호가 NATO 의제에 부상.

# 11. 최종 정리

## 11.1 러시아 전략의 본질

러시아 전략의 본질은 “시간을 무기로 사용하는 강압적 소모전”이다. 러시아는 빠른 결전보다 전쟁 비용을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장기간 부과하는 방식을 택했다. 전선에서는 포병·드론·활공폭탄·침투전술로 점진 압박을 가하고, 후방에서는 에너지·도시·산업 인프라와 방공망을 공격하며, 정치적으로는 핵 위협·협상 조건·서방 피로감·비서방 중립을 활용한다. 강점은 규모와 지속성이고, 약점은 비효율·사상자·기술 병목·경제 둔화·해군 취약성이다.

## 11.2 우크라이나 전략의 본질

우크라이나 전략의 본질은 “생존을 위한 적응형 방어와 비대칭 비용 부과”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동일한 방식의 대량 전으로 맞서기 어렵기 때문에, 심층방어, 드론 벨트, 전자전, 후방타격, 흑해 해상거부, 서방 지원 통합, 국제 여론전을 결합한다. 강점은 의지와 혁신이고, 약점은 병력·방공·탄약·전력망·서방 정치 의존성이다.

## 11.3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핵심 변수 10 가지

번호	핵심 변수	왜 중요한가
1	우크라이나 방공미사일과 Patriot 공급	도시·전력망·산업·정치 사기를 지키는 전략 탄약이다.
2	양측 드론 생산과 전자전 적응	근접 전장과 후방 타격의 비용 구조를 바꾼다.
3	러시아 포탄·미사일·활공폭탄 생산	러시아 소모전의 물질적 기반이다.
4	우크라이나 병력 동원·훈련·교대	방어선 유지의 가장 현실적 병목이다.
5	서방 정치와 예산 지속성	미국·EU 결정은 전선 지속력과 협상 지위를 좌우한다.
6	러시아 경제·노동력·제재 우회 능력	장기전 감내력의 한계선을 결정한다.
7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복원력	겨울, 산업 생산, 민간 사기에 직접 연결된다.
8	흑해 통제와 수출 통로	경제 생존과 해상 역지의 핵심이다.
9	국제 여론과 비서방 국가의 태도	제재 효과, 외교 압력, 전후 질서 정당성에 영향을 준다.
10	휴전 조건과 안전보장 구조	나쁜 휴전은 다음 전쟁의 준비기간이 될 수 있다.

## 11.4 한국·미국·유럽·투자자·언론인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

대상	주목 포인트
한국	드론·전자전·방공·포탄 생산·민간 인프라 보호·예비전력·한반도 장기 소모전 대비. 러시아-북한 군사협력과 기술 이전 가능성도 핵심 변수다.
미국	유럽 방위 부담 분담, Patriot/탄약 생산, 중동·인도태평양과 우크라이나 지원의 자원 경쟁, NATO 억지 신뢰성.
유럽	방위산업 확대, 동부전선 방공망, 에너지·항만·철도·해저케이블 보호, 장기 재정 동원, 우크라이나 EU 통합.
투자자	방산·드론·전자전·사이버보안·에너지 인프라·재건금융·원자재·해운·보험 리스크. 러시아 제재·우회조달·유가 변동도 주의.
언론인	전황 중계보다 구조 분석이 중요하다. 드론 영상, 사상자 추정, 지도 변화는 선전·편입·측정오차를 포함한다. 양측 서사를 분리해 검증해야 한다.

## 12. 주요 공개자료 출처

본문의 [S 번호]는 아래 공개자료를 가리킨다. URL 은 문서 작성 시점에 확인한 공개 페이지이다. 일부 자료는 언론 기사 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내용·수치·제목이 업데이트될 수 있다.

- [S1] Reuters, “At least 22 killed in Russian attack, Ukrainian president says new assault possible,” June 2, 2026. <https://www.reuters.com/world/large-pillar-smoke-seen-kyiv-after-air-raid-alert-issued-reuters-witness-reports-2026-06-01/>
- [S2] The Guardian, “Patriot missile shortage has created window of vulnerability Russia is exploiting in Ukraine,” June 2, 2026.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6/jun/02/patriot-missile-shortage-window-vulnerability-russia-exploiting-ukraine>
- [S3] CSIS, “Russia’s Grinding War in Ukraine,” Jan. 27, 2026. <https://www.csis.org/analysis/russias-grinding-war-ukraine>
- [S4] Modern War Institute at West Point, “The Industrial Window of War: How to Measure Russia’s Munitions Throughput—and How to Disrupt It,” Mar. 20, 2026. <https://mwi.westpoint.edu/the-industrial-window-of-war-how-to-measure-russias-munitions-throughput-and-how-to-disrupt-it/>
- [S5] RUSI, “Emergent Approaches to Combined Arms Manoeuvre in Ukraine,” Oct. 23, 2025. <https://www.rusi.org/explore-our-research/publications/insights-papers/emergent-approaches-combined-arms-manoevre-ukraine>
- [S6] Carnegie Endowment, “The Changing Military Balance in the Black Sea: A Ukrainian Perspective,” Apr. 2, 2026. <https://carnegieendowment.org/russia-eurasia/research/2026/04/the-changing-military-balance-in-the-black-sea-a-ukrainian-perspective>
- [S7] Russia Matters, “The Russia-Ukraine War Report Card,” May 13, 2026. <https://www.russiamatters.org/news/russia-ukraine-war-report-card/russia-ukraine-war-report-card-may-13-2026>
- [S8]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EU military support for Ukraine,” accessed June 2, 2026.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military-support-ukraine/>
- [S9] Kiel Institute, “Ukraine Support Tracker,” update Apr. 16, 2026. <https://www.kielinstitut.de/topics/war-against-ukraine/ukraine-support-tracker/>
- [S10] CEPA, “Ukraine and the Future of War,” Apr. 20, 2026. <https://cepa.org/article/ukraine-and-the-future-of-war/>
- [S11] Foundation for Strategic Research, “Twenty-one strategic lessons of the Ukraine war,” Feb. 16, 2026. <https://www.frstrategie.org/en/publications/notes/twenty-one-strategic-lessons-ukraine-war-2026>
- [S12] Chatham House, “How a Russia-Ukraine ceasefire could imperil Ukrainian and European security,” May 2026. <https://www.chathamhouse.org/2026/05/how-russia-ukraine-ceasefire-could-imperil-ukrainian-and-european-security/03-russia>
- [S13] Reuters, “Short on growth ideas, Putin hosts fifth wartime Russian Davos,” June 1, 2026. <https://www.reuters.com/business/short-growth-ideas-putin-hosts-fifth-wartime-russian-davos-2026-06-01/>
- [S14] AP, “Russian spies seek Western technology as sanctions bite,” May 2026. <https://apnews.com/article/russia-sanctions-intelligence-economy-defense-10ea5ad20158945f18c718375b84a2f3>
- [S15] Reuters, “Kremlin talks of new paradigm in Ukraine war,” June 2, 2026.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kremlin-talks-new-paradigm-ukraine-war-accusing-kyiv-acts-terror-2026-06-02/>